

나주시, 남아 도는 비료생산 시설에 또 보조금

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80억 지원 논란

업계 줄도산 우려 속 보조금 사업 실패 가능성 지적

포화상태에 있는 비료 생산을 위해 나주시가 또다시 80억원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0여 곳의 업체가 비료 650만포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보조금 낭비는 물론 업체의 줄도산 등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 생산을 통한 친환경 단지 범위를 공산·양곡·반

남편 등까지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이 보조금으로 업체 부담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나주축협, 공산농협, 마한농협, 동성축산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

정이다. 문제는 이미 나주지역 10여 곳의 퇴비생산업체가 지난해 20kg 650여만포의 비료를 생산해 시 퇴비 배정량 240만포를 두 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업체들은 주재료 부족으로 생산시설의 30%~70%가량 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근지역에서 가축분뇨를 구입하는 업체까지 생겨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과 비슷하게 지난 2010년과 2011년 친환경퇴비업체, 액비생산업체 2곳이 각각 국비, 시비 등 24억원씩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낭비는 물론 유사한 시설이 또 가동될 경우 업계 줄도산과 결국 보조금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00억원의 사업비는 순환자원화 시설에 50억5000만원, 공동육묘장 사업과 비 건조저장실, 광역방제기 구입, 퇴비 살포기 구입 등에 49억5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시는 협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료업체 대표는 "앞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들은 망하든 말든 아무런 대책 없이 보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되느냐"며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혼술만 나온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인증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좁아 사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면적을 넓히고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자가격도 내려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희기자 chung@

나주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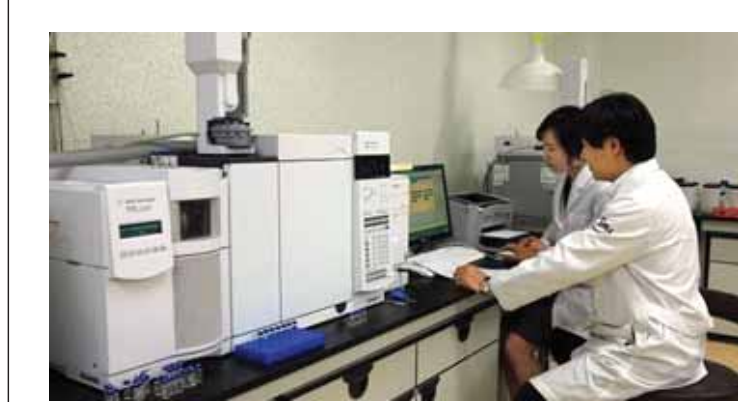
나주시가 태양광발전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사용 절감 목표치로 정했던 15%를 초과한 19.43%의 실적을 거둬 행정안전부로부터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로 14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시는 청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00kW급 태양광발전장치(조감도) 구축, LED 조명 교체, 대기전력차단시스템, 이중창 및 단열필름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무실 냉·난방온도 준수를 원칙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과 냉·난방 운전방법 개선 및 개인 전원기기 사용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대학기관 시험장비 연구개발에 활용 장흥 버섯산업연구원, 주관기관 선정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사진)이 중소기업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 기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시험연구 장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비전문가로부터 종합상담을 받은 후 시험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사용료의 경우 창업기업은 70%, 일반기업은 60%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자체사업으로 23개소의 산업체에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휴양·레저·항만시설 두루 갖춰 강진 마량항 종합관광지 만든다

군, 용역사업 중간보고회

강진 마량항이 휴양과 레저, 항만 시설 등을 갖춘 종합 관광지로 거듭난다.

강진군은 최근 마량항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마량항 발전 방향을 확정했다. 군은 마량항 주변을 ▲휴양체험권역 ▲레저스포츠권역 ▲해양수산물권역 ▲시가지정비권역 ▲항만여객권역 ▲물류거점권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양체험권역에는 리조트, 온천 지구, 랜선단지, 북산 테마공원,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레저스포츠권역에는 해양수영장, 해양낚시터,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비롯해 가막섬 데크와 개펄포카 체험장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수산물권역에는 수산물토요시장, 부잔고 등이 들어선다. 시가지정비권역에 대해서는 마량 5일시장을 개선하고 미항 테마가로수길을 조성하며, 항만여객권역에는 마량~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마량항~신마항 해안도로 설치, 물류거점권역에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현재 레저스포츠권역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들여 해양수영장과 해상 휴식공간(Book-Cafe)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마량항이 전남의 대표적 아름다운 항구로 자리매김하고 마량~제주항의 쾌속선 운항 등과 함께 활력 넘치는 항구로 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담배연기 없는 장흥만들기

없는 장흥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홍보전단에 시가를 붙여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정충근 제공)

장흥을 주민과 읍사무소 직원 40여명이 14일 자체 제작한 피켓, 어깨띠 등을 동원해 토요시장 방문객과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담배연기 없는 장흥을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홍보전단에 시가를 붙여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정충근 제공)

군산 수송동

원룸 밀집지역

연중 특별단속

소음 등 민원 제기 잇따라

군산시는 수송동 롯데마트 뒤 원룸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14일 "소음 등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면서 민원이 계속돼 지난달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선이 안 돼 연중 실시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도시로 급부상해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형성된 수송동 지역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주말 등에 단속한 결과 지난해 청소년 주류 제공 등 2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들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영상가요 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손님 노래를 부르도록 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영업 행위를 하기도 했다.

최근 주말 심야단속에서는 영업장 면적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주차장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영업하다 단속된 롯데마트 뒤 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영업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영업자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요구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푸른 물결 넘실...고창청보리밭축제 내달 개막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최초로 '보리'라는 테마로 개최된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올해로 10 회째를 맞았다. 다음달 20일부터 5월12일까지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10회 축제의 부지가 될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에 조성된 100ha의 보리밭. (고창군 제공)

순창군, 유용미생물 보급을 500t으로 늘려

가축 질병 예방·생장 촉진 돕는다

순창군은 유용미생물(EM)을 확대 보급해 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450t의 EM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규모를 500t(3억원 규모)으로 늘리고 EM 활성액과 사료용 EM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농가들이 EM의 효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군 지원비율이 낮아 사용을 주저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EM의 효과와 사용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EM 구입비의 80%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은 덜고 효과는 더욱 높였다.

EM농법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생장 촉진은 물론 작색, 당도향상 등에 효능이 있으며, 가축 질병예방과 약취 저감, 성장 촉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질개선 등 환경 분야와 EM 비누·화장품 등 일상생활용품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순창군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난 2005년 국비 1억원을 비롯한 도비와 군비 등 3억원을 들여 300㎡의 EM공장을 구입한 산지시험포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차 종균(원액)에 물과 당밀(설탕찌꺼기)를 배합해 30~50

배로 확대 배양한 EM 활성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EM효과가 높아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질 좋은 EM을 생산해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EM 사용법에 대한 실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공생하는 잘 사는 농촌을 실현하고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명품축산물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EM(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미생물군의 약자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을 주군으로 하는 미생물복합체를 말한다.

단신

정읍시, 청소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들은 아나운서 방송체험 활동,

직업멘토를 만나는 꿈꾸는 육포끼, 대학 탐방, 진로컨설팅(진로탐색), 학습유형검사(MLST)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정서함양 및 품성개발 프로그램으로 나를 깨우는 심리연극캠프, 멋진 우리 심성 캠프, 감사편지 및 사랑의 보물찾기, 부모교육 등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2013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238명 입학식

2013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입학식이 14일 남원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입학생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남원명품농업대학은 맞춤형 교육실현을 위해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 혁신리더과, 도시농업과, 한우

과, 포도과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238명이 입학한 올해 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하고 과정별 담당 전문지도사의 지속적인 참여로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군산역사박물관, 근대문화공연 정기적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해 근대문화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6일에 시작돼 10월까지 개최되는 근대문화 공연은 '근대연극'과 '근대인형극'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주

말토, 일요일 오후에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근대연극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시 두 차례에 걸쳐 공연되며, 박물관 자연봉사자 연극팀이 출연해 소설 '타류와 이리랑' 등의 내용을 재현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무인민원발급창구 1곳 추가 설치

고창군은 14일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증명증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해 온 고창군청 민원봉사과 외에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000여 명 이상 되는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365코너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이용의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식장치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